



기독일보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음력 4월 2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797호

코로나로 가정 중요해졌는데… 신앙 교육은 ‘뒷전’

기독교인 부모 1,500명 대상 설문… ‘지성·진로 교육’에 밀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보다 인성이나 지성 등의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힘 Power of Family’(총괄디렉터 단체장 독수리학교 교장, 이하 ‘가정의 힘’)는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와 함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한국 기독교 가정의 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 실태’를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모든 연령에서 신앙 교육은 최하위

그 결과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녀 교육은 인성 교육이 93.9%로 가장 높았다. 이

어 지성 교육(79.4%)과 진로 교육(69.2%) 순이었다. 신앙 교육은 58.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자녀가 아릴수록 지성 교육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진로 교육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모든 연령에서 신앙 교육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독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내용에 있어서도 ‘신앙’은 후순위로 밀렸다. △일상적 일들 △취미, 운동, 놀이 등 여가생활 △학습과 재능 개발 △진로 고민 등의 대화가 그보다 앞섰다. 자녀의 연령이 아릴수록 학습과 재능 개발에 들이는 시간이 많았고, 부모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 고민 등의 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사기관은 “부모가 평일 하루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평균 시간이 1시간 9분, 주말 2시간 9분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화의 대부분은 일상적 대화와 자녀의 학습 진로 관련 대화임을 알 수 있고, 신앙 교육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주일학교 참석 87.9% 주일학교 등 참석 49.1%

가정 구성원들의 교회 출석은 “부부와 자녀가 모두 교회에 출석한다”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출석한다”는 답은 5.7%, “아버지와

자녀 모두 출석한다”는 2.0%였다. 가족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 명만 출석하는 경우는 5.9%였다.

자녀들의 주일예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참석은 87.9%가 참석한다고 답했지만, 추가적으로 주일학교 성경공부나 기타 교회 활동(온오프라인 포함)에 참석하는 경우는 49.1%로 훨씬 적었다.

◆‘자녀들, 신앙 이탈의 결정적 시기 ‘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63.2%는 자녀를 포함해 3대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3대 49.9%, 4대 13.3%), 2대(부모와 자녀)라고 답한 비율은 34.4%로 이보다 낮았다. 특히 부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신앙생활을 이어온 대수가 더 높아졌다(30대 평균 2.9대, 40대 평균 2.8대, 50대 평균 2.5대).

이에 대해 조사기관은 “한국의 기독 가정들이 갈수록 수평적 전도에 의해 신앙을 기진 경우보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수직적 전도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첫째 자녀의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유치원 자녀 93.1%, 초등학생 93.1%, 중학생 92.3%에 비해, 고등학생 자녀는 78.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기관은 “기독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결정적’ 시기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고등학교 때 부터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손을 놓는 시기 역시, 성적과 입시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큰 우선 순위가 되는 고등학교 무렵부터라는 것 이 확인된다”면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가 가장 높은 부정적인 응답(36.4%)을 내놓았고, 자녀와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응답이 높아졌다”고 했다.

◆‘신앙적 가정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 중요’

신앙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구성원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편아버지’라는 답이 51.5%, ‘아내어머니’라고 답한 40.4%보다 높았다. 반면 “아버지들이 가정의 신

앙을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자로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1%의 아버지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56.1%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1순위로 꼽았고, 20.2%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가족들의 신앙성장을 돌보는 일’이라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하는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7%에 불과했고,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4.8%에 그쳤다. 반면, “자녀의 신앙 교육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1.5%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사기관은 “부모들이 느끼는 필요에 비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간 가정에서의 신앙 활동(가정예배, 가족기도, 성경 읽기 및 QT)을 위한 자료를 교회가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교인 수 1,000명 이상 대형교

회는 70.7%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49명 이하 작은 교회는 53.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신앙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이뤄져야’

‘가정의 힘’은 “다음세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와 가정이 중심이 되어, 교회와 가정이 파트너로써 협력하는 형태로 신앙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의 힘’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데이터를 통해 본 3040

크리스천 부모’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신

앙과 자녀 교육 실태: 희망과 비관’ ‘교회

를 위한 실천적 제안과 향후 연구 과제’

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비공개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성수동 포트리 1층 메인홀)에는 20명까

지 선착순 참여가 가능하다. 세미나 참가

자료는 구글링크(<https://forms.gle/AWhp4wCGnw2HVFQQ7>)에서 할 수 있

다. 김진영 기자

독일은 ‘전단’으로 ‘나치 범죄’ 알린 영웅 기념하는데…

“대북 정보 유입 활동 지원해야”

독일 사회가 옛 나치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전단을 통해 알리다니 체포돼 교수형을 당한 여대생 조피 솔(Sophie Scholl)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특히 한 민간단체는 독일 국민을 깨우려던 솔의 노력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 비슷하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학교, 주요 언론들은 지난 9일 조피 솔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기념주제 행사를 특집기사 등을 통해 그의 업적을 기렸다. 옛 나치독일 정권에 저항한 조직 ‘백장미’를 오빠인 한스 솔 등 친구들과 조직해 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솔은 독일에서 손꼽히는 국가 영웅 중 한 명이라고

뮌헨대 학생이었던 솔은 독일인들이 손을 높이 들어 히틀러를 숭배하던 나치 독

재정권 시절 유대인 대학살과 전쟁범죄 등 정권의 만행과 거짓 선전을 전단에 담아 뮌헨 시민들에게 폭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던 솔은 나치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침묵하는 독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942년부터 히틀러를 비판하고 국민 저항을 촉구하는 전단 살포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3년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참수됐다.

당시 21살이었던 솔이 처형 전 담당하게 일기장에 적은 글은 독일인들이 교과서를 통해 달달 외울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VOA는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독일의 인권단체인 ‘SARAM’의 니콜라이 스프레겔 공동대표는 11일 VOA에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극심한 인권 침해에 저항할 필요를 느끼는 일부 용감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며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해 투쟁하도록 다른 이들에

게 영감을 불어 넣는다”고 말했다.

스프레겔 공동대표는 히틀러 나치 정권처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 선전과 선동으로 자국민을 통제하는 북한 정권에 대응해 전단 등 외부 정보로 북한 주민들을 깨우려는 탈북 운동가들도 솔처럼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활동은 탈북 운동가들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등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한국의 소위 대북전 단금지법이 활동가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VOA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 등을 통해 정보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잔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며 “한국 정부는 전단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자극하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 사랑 전해요”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문데)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은 12일 이곳을 방문해 미혼모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과 아기용품 등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2면 ◎한교연

스프레겔 공동대표는 그러나 “잔혹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나치 정권과 미얀마 군부의 인권 범죄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

재정권을 비판하고 주민들을 깨우는 민간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프레겔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조피 솔도 독재사회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가

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미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막겠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The Park

1021세대 1단지내 1층상가 분양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로 가장 큰 미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1층 상가보다 최대 700만원 정도 낮은가격으로 분양과 동시에 2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동일스위트 1층상가에 투자하세요!!

선탁순 10분 특별한 혜택!!!

을 누리세요!

온라인 상가보기

1,021세대 대단지! 8,000여 세대 배후단지 수요! 2층 상가 분양완료! 1층 상가 특별공급!

권장업종 | 마트 / 편의점 / 애견샵 / 치킨 / 카페 / 제과점 / 피자 전문점 / 세탁소 / 분식점 / 프랜차이즈 / 자유업종

프랜차이즈 특별상담 중!

입지가 수익이다

풍부한 배후수요

확실한 미래가치

준공필 즉시입점

실 투자금 8,000만원부터

온라인 상가보기

주말방문 / 상담가능

1588-3136